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농학계 대학생들의 꿈

김 민 규
충남대 동물자원과학부 교수

지난주 한 학기 강의를 마치고 몇몇 학생들과 상담 시간을 가졌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는 상담 시간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수년간 학생들과 상담을 해왔지만 교수와 학생 간 소통의 틈새가 너무 커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진지하게 성찰해 보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요즘 학생들은 교수가 강의하듯 상담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그래서 필자는 짜장면이나 간식 등을 먹으며 상담하는 방법을 좋아한다. 학생들이 즐기는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의 생각을 허물없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학생들과 진로에 대해 상담한 내용을 잠시 소개하자면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조화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목표와 꿈을 가져야 하나?'라는 주제가 가장 많았다. 이번 상담에서는 최근 영국 런던과 맨체스터의 54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사라진 것을 계기로 맥도널드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업계와 글로벌 식품 포장재 기업의 '플라스틱 빨대 퇴출'이 지구촌 공동 전선으로 확대될 가능성과 반발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다.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것처럼 일부 호텔, 항공사, 크루즈선 업체들이 빨대 퇴출 운동에 동참하지 않고 있어서 친환경 실천에 대한 법 규정에 앞서 막대한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토론하였다. 많은 학생들의 의견은 환경 친화적 기업이 성공할 수 있고, 변화하는 미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전략과 기술을 가져야 생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굳이 4차 산업혁명이니 미래 산업이니 하는 화려한 문구가 아니더라도 생존을 위한 친환경 산업이 부상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근본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산업은 성장하기 마련이다. 내연기관을 대체할 전기 자동차,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와 첨단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헬스케어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모두가 사람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산업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산업이 있다. 바로 '농업'이다. 농업이야 말로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가장 근본이 되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농업이 미래 산업'이며 여기에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필자가 최근 몇 년간 상담한 학생들 중 일부는 소나 돼지를 키우는 농장을 경영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부모들의 반대로 이를 이룰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말하는 농업이라는 기존의 네이밍(naming)에 갇혀서 새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버리는 것이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해 주곤 한다. 첨단 농법이나 스마트 농업이라는 거창한 테두리를 치기보다는 농업 속의 문화, 농업과 함께 하는 문화, 삶 속의 문화로서 농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1, 2, 3차 산업을 복합해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6차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과 함께 일을 통해 삶의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농업이 중요한 산업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아이들은 한국형 6차 산업화의 주축인 '농업'을 진정한 미래 산업으로 이해하고 꿈을 키워가고 있으나, 정작 부모들은 그 꿈에 도전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물론 필자도 그 심정이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급변하는 세상에서 어떤 직업군이 미래에 전망이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겠다. 사람이 시작하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행복하기를 꿈꾸는 미래 시대의 희망을 위해서라도 진지한 소통의 장이 가정에서 먼저 선행되기를 소망해 본다.

종교칼럼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중 현
화순 용암사 주지스님

최근 방영된 1박2일은 '멤버들의 단점 극복 프로젝트' 편이었다. 멤버 중 한 명인 정준영이 1일 PD가 되어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했다. 기상 미션으로 포장된 데프콘과 조보아와 깜짝 브런치 타임은 기존 기상 미션의 틀을 넘어서는 신선한 기획이었다. 정식 피디도 아닌 연예인이 모든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했다. 그것도 덜렁덜렁해 보이는 스물아홉 살 청년이 말이다.

KBS방송국 PD가 되려면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합격하더라도 1박2일 같은 골든 타임 프로그램의 PD가 되려면 상당한 경력을 쌓아야 한다. 그런데 정작 그 일 자체는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라면 그럭저럭 해낼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실제 TO(정원)가 몇 개 되지 않을 뿐, 달리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니까 한군데 박혀 있지 않고 굴러다니는 돌은 결코 넘볼 수 없는 자리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지금 나는.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속담의 원래 의미는 '많이 떠돌아다니거나 직업을 자주 바꾸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니 한 우물을 파라'는 것이다.

어느 분야든 소위 '제도권'이 있기 마련이다. 해당 분야의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비로소 돈과 명예,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사회적 힘, 즉 권력이 부여된다. 지금의 한국 사회처럼 정체된 사회에서 제도권에 들어가려면, 제도권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물론 이 조건은 해당 분야의 능력과 관련이 있을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다. 걸러내는 것이 중요할 뿐,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소위 '제도권'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려면 우선 '내부자'로 자신을 자리매김 해야 한다. 각종 관습, 정서, 문화, 상식, 전통, 위계질서 등 '내부'를 지탱하는 모든 것에 충성해야 한다. 나아가 내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부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내부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의 헌신과 노력이 곧바로 내가 몸담고 있는 내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이런 대다수의 내부자들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자신이 속한 집단을 떠나 자신의 운명을 생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한 우물만 파라'는 표현의 현실적 의미는 몸도 마음도 확실하게 '내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부자'에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몸도 마음도 '내부'에 있다 보니 밖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한 곳에 박혀서 이끼가 잔뜩 낀 돌은 밖을 보지 못한다.

'경계인'이라는 말이 있다. 독일에 거주하며 남과 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에 있다는 의미에서 경계인이라 자신을 칭했던 송두율 교수로 인해 유명해진 단어다. 기실 경계인의 특성은 재일 한국인들에게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은 일본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귀화하지 않는 이상 '국외자'로 취급받는다. 그들은 조선, 대한민국, 일본 그 어디에서도 정체성을 확인받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정준영의 나이를 검색하다가 그의 특이한 이력을 알게 되었다. 19세에 한국에 처음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 미국, 인도네시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필리핀, 일본 등 숱한 나라를 전전하며 성장기를 보냈다. 어린 나이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언어의 장벽'을 깨달았고, 일찌감치 외로운 일이 있어도 헤쳐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고도 고백했다. 정준영은 경계인으로 성장한 것이다. 어쩌면 정준영에게 경계인 특유의 관찰력이 있었기에 이번 1박2일이 가능했었는지도 모른다.

경계인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자신을 피난처 삼아 의지하고 진리를 피난처 삼아 의지하라"고 하신 부처님 역시 경계인이었다. 아니다. 길 위에서 태어나 길 위에서 돌아가신 부처님은 몸도 마음도 오롯하게 경계인이었다.

주체적인 마인드와 균형 잡힌 감각은 경계인의 중요한 덕목이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속담은 경계인적 심성을 갖추기 위해 현대인이 새겨야 할 격언이다.

기 고

'교통사고 제로(Zero) 광주' 결코 꿈이 아니다

김 준 영
광주시 교통건설국장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 하나는 가슴 속에 안고 살아 갈 것이다. 필자 역시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가슴 속에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1992년 12월 31일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연말연시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바로 아래 동생이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중하다는 비보를 접하게 되었다.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 동생이 있는 경기도 의왕의 한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생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꽃다운 나이에 피워보지도 못 한 동생의 사고 소식은 나에게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큰 슬픔이었다.

지금도 매년 12월이 되면 그때 그 악몽이 되살아나고 그리움과 미안함, 자책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별이란 모든 이에게 힘든 시련으로 다가오지만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예고 없는 이별은 남겨진 가족들이나 지인에게는 더할 수 없는 아픔과 충격이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제는 어느 정도 이별의 슬픔을 딛고 일어선 필자는 현재 광주시의 교통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누구보다도 교통사고의 피해와 아픔을 잘 알기에 교통 분야의 다양한 업무 중에서도 특히 교통 안전 분야에는 더욱더 애착을 가지게 된다. 어떻게 하면 단 한 명의 시민도 나와 같은 가슴 아픈 상황을 접하지 않고 일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드릴 것인가, 교통 정책의 방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누구와 파트너십을 맺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마음을 다잡으며 업무에 임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교통건설국장으로 임용되자 마자 필자가 가장 먼저 서두른 것은 경찰청과 교통 관련 유관 기관이 모두 함께하는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팀'을 구성한 것이다. 이번 달까지 모두 일곱 차례 회의가 개최됐고, 회의에서 제안된 우수 정책은 바로 현장에 접목하였다.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복지 회관과 경로당 등 노인 복지 시설 방문 교육이나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중앙 분리대 설치 사업, 지난 3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한 학운초등학교 주변 교통 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호 구역 표준 모델'을 도입해 초등학교 두 곳에 시범 설치했다. 이 사업은 큰 호응을 얻어 조만간 여섯 개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아이들이 통학하기에 다소 위험성이 높은 초등학교 12개소를 대상으로 한 '교통 안전 지킴이 시범 사업'도 교육청, 자치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선별된 교통 안전 지킴이가 통학 방향이 유사한 어린이들과 동행하며, 집 근처까지 안전하게 등하교 시켜주는 사업이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광주 지역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5월 관내 교통사고는 28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35건에 비해 5.1% 감소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 56명에 비해 46.4%나 줄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 세 명이었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올해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 광주시와 자치구, 경찰청, 유관기관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소통하고 협업해 얻어낸 성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 광주 시민 스스로가 교통 안전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교통 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하며, 성숙한 교통 문화 의식을 보여준 결과로도 해석된다.

광주시의 이러한 다양한 교통 안전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보완·발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하지만 우리 시의 노력만으로는 '교통사고 제로(Zero) 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나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이 중요하듯이 타인의 안전과 생명도 소중하다는 상호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통해 어머니의 품 같이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안전한 도시 광주 만들기에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

社 說

교육부 2단계 평가 지방대 현실도 감안해야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 광주·전남 지역 주요 대학들이 대거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국립대와 지역 대표 사립대까지 포함되면서 해당 대학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충격에 빠졌다. 교육부의 이번 진단 결과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 정원 감축과 폐교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1단계 심의 결과, 전국 86개 대학에 '2단계 평가'를 받도록 비공개 개별 통보했다고 한다. 여기에 국립대인 순천대와 조선대·조선간호대·남부대·송원대 등 광주·전남 주요 일반대와 전문대 등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의 결과 다행히 '2단계 평가' 대상에서 빠진 대학들은 1단계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의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면 된다. 교육부는 1·2단계 평가를 합산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 8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 감축을,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 감축은 물론 정부 지원을 전면 또는 일부 제한하게 된다.

2019학년 입시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를 5만 명이나 초과하게 된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지방대에 집중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방대의 고사는 지방 교육계와 경제의 쇠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수도권대와 지방대의 균형 발전이라는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목표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교육부는 2단계 평가 시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방대 현실을 감안해야 하다. 순천대와 조선대 등 2단계 평가 대상 대학들은 교육 과정의 문제점 보완, 재정 운영 투명성 제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 학내 갈등 해소, 규모에 맞는 자체 개혁 등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고졸 채용 한 명도 없다니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 기관의 고졸 출신 정직원 채용이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래 지역 의무 채용 비율 확대로 학생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달리 고졸 출신 학생들의 취업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혁신도시 입주 공공 기관 12곳의 정규직 채용 인원은 지난 2015년 2004명에서 2016년 2149명, 지난해 2670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고졸 출신 정규직 채용은 2015년 362명에서 2016년 429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들어 339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한전의 경우 지난해 채용 인원 1574명 가운데 고졸 직원은 229명(14.55%)으로 입주 공공 기관 평균보다 높았다. 하지만 채용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21.60%, 2016년 20.24%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6년 22.75명(16.76%)에서 지난해 31명(6.21%)으로 채용 규모가 늘었지만 고졸 채용 비율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해 고졸 출신 정규직 직원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전KDN,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었다. 이주 공공 기관 전체 12개 기관 중 절반이 넘는 7개 기관이 단 한 명의 고졸 출신도 채용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 고졸 취업율만 높아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상당수 이전 기관이 단 한명의 고졸 출신도 뽑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정착되려면 고졸 출신을 비롯한 지역 출신 인재 채용이 필수다. 관계 기관들은 지역 균형 발전의 취지에 맞게 지역 인재 채용을 늘리는 데도 신경을 써 주기 바란다.

無 等 鼓

병역 거부

강원도 화천에서 함께 훈련을 받던 한 병사가 갑자기 헌병대로 끌려가던 일이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다. 그는 훈련소 입소 다음 날 우리들이 거리낌 없이 집어 들었던 M16소총 집총(執銃)을 끝내 거부했다. 총을 건네려는 조교와 한참 승강이를 하다 결국 헌병대로 연행된 것이다. 나중에야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그가 종교 교리에 따라 집총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현재 대법원에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때문에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저촉돼 심판 대기 중인 사건이 100건을 넘는다. 대법원은 2004년 "병역 거부자의 양심 실현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문제는 판례와 달리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리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데 있다.

국제적 인권 단체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손을 들어주는 추세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우리 국민의 청원에 '자유권 규약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유럽인권재판소도 2011년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아르메니아 정부가 인권 규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한민국에서 병역 의무 준수 여부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대통령을 비롯해 예외 없이 선출직 공무원의 첫 검증 대상이 병역일 정도다. '징병제 국가에서 대체 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강하다. 국내외 환경을 고려해 판례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한 병역법,예비군법 위반 사안에 대한 공개 변론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한다. 대법관 모두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 심리를 택한 것으로 미뤄 사안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다. 재판부가 의견 제출을 요구한 단체가 국방부, 재향군인회, 국제엠네스티 등 무려 12개 단체에 달한다.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에서 양심적 예외를 인정하느냐를 놓고 머리를 싸매게 될 재판부의 고뇌에 눈길이 간다.

/윤영기 사회부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63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FAX 222-4938〉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정치부 220-0632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2부 220-065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사진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4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